



2025년 하반기
경제환경 전망

2025. 6.





목 차

| | |
|--|-----------|
| I. 경제 및 산업 환경 | 1 |
| 1. 세계 경제 | 2 |
| 2. 국내 경제 | 6 |
| 2. 산업 환경 | 8 |
| <참고1> IBK 여신 잔액 기준 상위 5대 제조업 전망 | 10 |
| <참고2> IBK 여신 잔액 기준 상위 5대 서비스업 전망 | 11 |
| <참고3> 글로벌 철강제품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따른 영향 | 12 |
| <참고4> 미국의 해양·조선분야 제재 조치에 따른 조선업 영향 ... | 12 |
| II. 중소기업 환경 | 13 |
| 1. 중소기업 경기 | 13 |
| 2. 중소기업 금융 | 14 |
| <이슈> 중소기업 對美 수출 현황 | 15 |

I | 경제 및 산업 환경

- ◆ 2025년 하반기 세계·국내 경제는 상반기 트럼프 재집권과 함께 시작된 글로벌 무역갈등이 더욱 심화하는 것은 물론, 각 국가에 잠재된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‘다중위기(Polycrisis)’의 시대가 도래할 전망

< 하반기 세계경제 구조적 위험요인(관세外) >

| 위험요인 | 내 용 |
|---------|---|
| 과잉 부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全세계적으로 높은 부채 수준이 지속되면서 각국 경제주체의 소비·투자여력을 제약, 경기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<p>※ 全세계 부채(GDP대비 %, IIF) : 189('05) → 239('15) → 248('24)</p> |
| 기술패권 경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간 첨단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·무역장벽이 높아지며, 자국 중심의 생산기지 재편 가속화 <p>※ 국가별 해외기술규제 건수(WTO, 1~4월) : 1,456('24) → 1,664('25), +14.3%</p> |
| 지정학적 불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美-中 갈등, 러-우 전쟁, 중동 분쟁 등 全세계적·장기적 균열이 물류 안정성을 훼손하고, 경제·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확대 <p>※ 미·중 갈등 영향으로 트럼프 1기 '19년 全세계 성장을 △0.8%(IMF)</p> |
| 기후 위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폭염·홍수 등 기후재난이 빈번해지고, 블록화 된 기후 대응에 따른 공급망 타격으로 물가상승 및 경기하방 리스크 증대 <p>※ 美기후협약 탈퇴('25.1), 韓GDP '30년까지 기후 시나리오별 최대 △2.0%(한은)</p> |

⇒ 상기 위험요인들이 통상정책 이슈와 결합해 불확실성과 갈등이 고조되고, 주요 국가별로 경제성장률을 최대 1%p 감소시키면서 全세계 성장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

< '25년 IMF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>

(%, %p)

| 전망시점 | 세계 | 선진국 | 미국 | 일본 | 유로존 | 한국 | 신흥국 | 중국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'25.1월 | 3.3 | 1.9 | 2.7 | 1.1 | 1.0 | 2.0 | 4.2 | 4.6 |
| '25.4월 | 2.8 | 1.4 | 1.8 | 0.6 | 0.8 | 1.0 | 3.7 | 4.0 |
| 수정 폭 | △0.5 | △0.5 | △0.9 | △0.5 | △0.2 | △1.0 | △0.5 | △0.6 |

1. 세계 경제

□ (미국)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내수 위축과 재정여력 감소로 성장세 둔화 전망

※ 경제성장률(전기비연율, %) : 1.6('24.Q1) → 3.0(Q2) → 3.1(Q3) → 2.4(Q4) → △0.5('25.Q1)

- (소비) 가계 실질소득* 증가세에도 향후 경기 둔화 우려 확대로 소비심리**가 위축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

* 가계실질가처분소득(전기비연율, %) : 1.0('24.Q2) → 0.2(Q3) → 2.5(Q4) → 2.5('25.Q1)

** 소비심리지수(전동비, %, 미시간대) : △15.9('25.2) → △28.2(3) → △32.4(4) → △24.5(5) → △11.0(6)

- (투자) 리쇼어링·감세 정책 등은 상방요인이나, 정책 불확실성 지속 및 금리 인하 지연이 기업의 투자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

- 높은 수준의 금리*와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등이 수요를 위축시켜 주택투자** 회복 지연

* 모기지 금리(30년 만기, %, 美모기지은행협회) : 5.15('00~'24년 평균) < 6.88('25.6월 말)

** 주거용 투자(전기비연율, %) : 13.7('24.Q1) → △2.8(Q2) → △4.3(Q3) → 5.5(Q4) → △1.3('25.Q1)

- (정부지출)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(124.3%, '24년)*와 감세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여력 약화로 정부 중심의 성장도 제약

* 재정지출 中 국채이자지출 비중(%), 美의회예산처 : 7.6('22) → 10.7('23) → 13.0('24)

※ 연방 세수총액에서의 관세수입 비중도 1.8%(법인세 11%, 개인소득세 49%)에 불과해 관세를 통한 세수 확보 효과도 크지 않을 전망

- (물가) 관세정책이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을 유발하여 인플레이션 재확대 압력으로 작용 ※ 실효관세율(% OECD) : 1.7('00~'24년 평균) < 15.4('25.5)

- (통화정책) 여전히 양호한 고용지표*, 물가 경로 불확실성 등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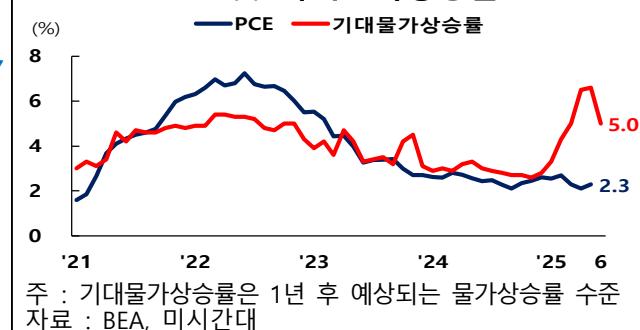
* 실업률(전동비, %) : 4.0('25.1) → 4.1(2) → 4.2(3) → 4.2(4) → 4.2(5)

< GDP 대비 정부 부채 >



주 : '25년 이후 데이터는 전망치
자료 : 美 의회예산처

< PCE 및 기대물가상승률 >



주 : 기대물가상승률은 1년 후 예상되는 물가상승률 수준
자료 : BEA, 미시간대

□ (중국) 수출→소비→투자의 연쇄적 부진이 구조적 하방요인으로 작용, 정부 부양책 효과가 감쇄되며 성장률 둔화 예상

※ 경제성장률(전동비, %) : 5.3('24.Q1) → 4.7(Q2) → 4.6(Q3) → 5.4(Q4) → 5.4('25.Q1)

※ '25년 성장률 전망(전동비, %, 각 기관) : (IMF) 4.0, (OECD) 4.7, (WorldBank) 4.5, (중국과학원) 4.8

< '25년 중국 주요 재정·통화정책 >

(조위안)

| 항 목 | 규 모 | 목 적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초장기 특별국채 | 1.3 | 국가프로젝트, 이구환신, 노후장비교체 |
| 지방정부 특수 채권 | 4.4 | 유류토지·미분양 주택매입, 지방인프라 개발 |
| 담보보완대출(PSL) | 0.5 | 부동산 프로젝트 완공 지원 |
| 재정적자율 상향 | 3 → 4% | 경기부양 및 사회인프라 투자 |
| 지급준비율 인하 | △0.5%p | 시장 유동성 1조 위안 규모 공급 |

- (수출) 美-中 관세인하 합의는 단기적 상방요인이나, 밀어내기 수출에 대한 각국의 추가관세 우려* 증폭되며 점진적 둔화 전망

* G7은 각국 재무장관 회의(5.20일)에서 中 저가제품의 공급과잉에 대한 관세 부과를 논의

※ 수출(전동비, %) : 10.7('24.12) → 6.0('25.1) → △3.0(2) → 12.4(3) → 8.1(4) → 4.8(5)

- (소비) 정부 부양 효과에 따른 단기적 반등*에도, 제조업 경기 둔화**에 따른 고용 불안 및 높은 저축률(44.4%)로 위축 예상

* 소매 판매(전동비, %) : 3.7('24.12) → 4.0('25.2) → 5.9(3) → 5.1(4) → 6.4(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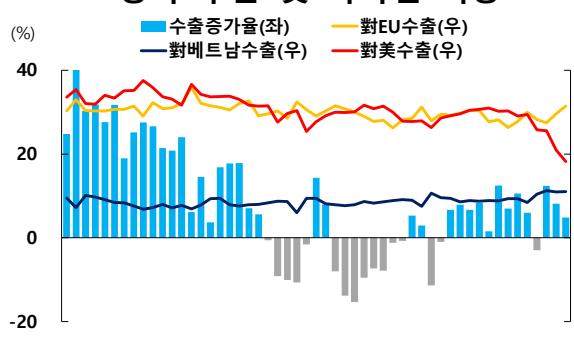
** 제조업PMI(기준=50) : 50.1('24.12) → 49.1('25.1) → 50.2(2) → 50.5(3) → 49.0(4) → 49.5(5)

- (투자) 수요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회복 지연 및 지방정부(LGFV) 과잉부채* 문제가 정책 효과를 상쇄시켜 부동산투자** 부진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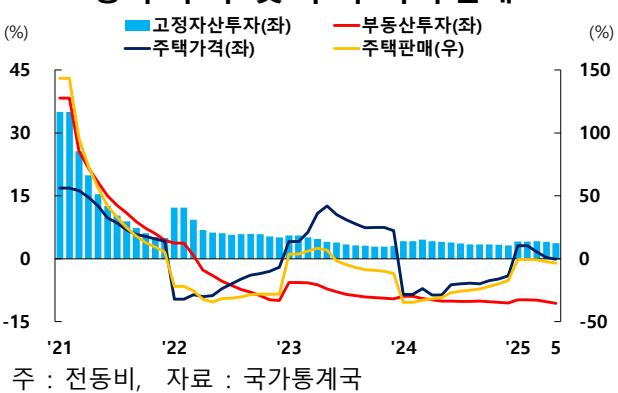
* 중국 LGFV 규모는 '23년 기준 60~61조 위안 규모(GDP의 50% 이상)로 추정

** 부동산투자(전동비, %) : △10.6('24.12) → △9.8('25.1) → △9.8(2) → △9.9(3) → △10.3(4) → △10.7(5)

< 중국 수출 및 국가별 비중 >



< 중국 투자 및 주택 가격·판매 >



자료 : 해관총서

주 : 전동비, 자료 : 국가통계국

□ (일본) 내수 하방 압력 증대로 경기 위축되며 성장률 정체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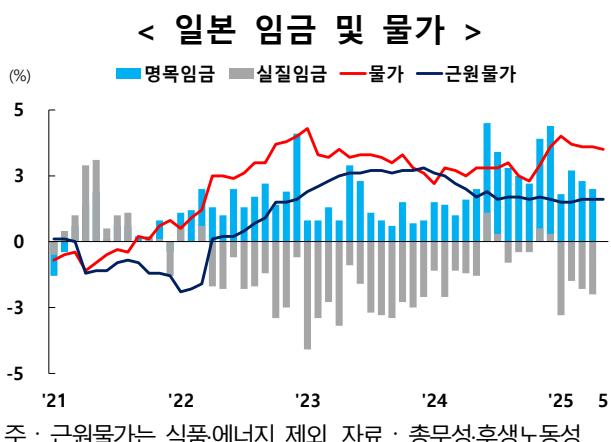
※ 경제성장률(전동비, %) : $\Delta 0.7('24.Q1) \rightarrow \Delta 0.6(Q2) \rightarrow 0.8(Q3) \rightarrow 1.3(Q4) \rightarrow 1.7('25.Q1)$

- 역사적 고물가가 지속되며 실질임금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, 높은 생활물가*(식료품·에너지 등)로 가계소비 여력 감소
 - * '25.5월 물가상승률(전동비, %) : (전체) 3.5, (식품) 6.5, (쌀) 101.7, (에너지) 8.1, (전기) 11.3
- 美-日 환율 협정·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對美 수출 경쟁력 하락 가능성 및 日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도 경기 위축 요인
- ※ 자동차 산업은 對美 수출의 약 34%, 전체 고용의 약 8.2%('24년, 일본자동차공업회) 차지
- 관세 發 기업 수익성 악화가 현실화 될 경우, 임금상승률 둔화로 내수 하방 압력 확대될 전망

□ (유로존) 소비 개선에도 수출·투자 부진 지속으로 성장 둔화 예상

※ 경제성장률(전동비, %) : 0.5('24.Q1) $\rightarrow 0.6(Q2) \rightarrow 0.9(Q3) \rightarrow 1.2(Q4) \rightarrow 1.5('25.Q1)$

- 물가 안정*으로 소비 부진 완화 예상되나, 무역분쟁·高에너지 비용**· 유로화 강세 등으로 수출 회복은 저조, 투자심리 위축도 지속
 - * 물가상승률(전동비, %) : 8.7('23.1) $\rightarrow 2.8('24.1) \rightarrow 2.5('25.1) \rightarrow 2.3(2) \rightarrow 2.2(3) \rightarrow 2.2(4) \rightarrow 1.9(5)$
 - ** EU는 러시아산 가스와 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, 비용 상승 불가피
 - EU 방위비 투자 및 주요국 재정확대 발표로 경기 회복 기대감 증대되었으나, 단기간 내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



< 유로존 주요국 재정정책 >

| 국가 | 정책 |
|-----|--|
| 독일 | - 10년간 국방, 교통, 전략산업, 에너지 등에 5천억 유로 지출 - 국방비 증액 한도 상향 - 방산 수출 심사 완화 |
| 프랑스 | - 친환경 지원금 축소 - 국방, 보안, 사법 지출 확대 |

자료 : KOTRA, 언론 보도

□ (신흥국) 소비증대·투자확대 정책 등을 통해 성장세 유지 전망

- (인도) 에너지 인프라 투자*, 소득세 개편** 등 소비촉진을 통한 성장도모
 - * 인프라 확충 정부지출 목표 증액('25.2월) ** 연소득 면세한도 확대 : 70만 → 120만 루피
- (인도네시아)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*,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 등 추진
 - * 석유화학 플랜트 구축 등 21개 원자재·에너지 산업 투자 프로젝트 승인(400억달러, '25.3월)
- (베트남) 성장세(Q1 6.93%, '20년 이후 최고) 유지를 위한 투자유인 정책 지속
 - * FDI 증가율(전동비, %) : 2.03('25.1) → 5.36(2) → 7.83(3) / 공공투자예산 : '24년대비 3% 증대
- (폴란드) EU기금·정부투자 확대*, 안정적 소득 증대**를 통한 성장률 제고
 - * '25년 EU 경제회복기금(RRF) 60억 유로 확보 + 137.5억 유로(녹색에너지, 인프라, 디지털전환 투자)
 - ** 최저임금 상승률(%) : 7.5('22) → 19.6('23) → 19.4('24) → 8.5('25)

< IMF 경제성장을 전망 >

| (%) | 인도 | 인도네시아 | 베트남 | 폴란드 |
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
| '24년 | 6.5 | 5.0 | 7.1 | 2.9 |
| '25년 ^P | 6.2 | 4.7 | 5.2 | 3.2 |

< 신흥국 잠재적 위협요인 >

- ① 재정정책 확대, 기업부채 증가 등으로 국가부채 및 이자부담 확대

| 국가 | GDP 대비 국가부채 | | | GDP 대비 이자부담 |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| '22 | '23 | '24.Q3 | '22 | '23 |
| 인도 | 170.5 | 173.3 | 175.0 | 5.03 | 5.41 |
| 인도네시아 | 78.9 | 79.1 | 78.8 | 1.97 | 2.11 |
| 폴란드 | 109.6 | 107.9 | 112.1 | 1.54 | 2.09 |

자료 : BIS, IMF

- ② '25년 신흥국 채권 및 대출 상환액(만기도래) 8.2조달러로 최고치 기록

※ 채권·대출 상환액(조달러) : 4.8('20) → 5.5('21) → 7.1('22) → 6.6('23) → 7.5('24) → **8.2('25)**

- ③ 미국 고율 관세부과(인도 26%, 인니 32%, 베트남 46%)로 수출 감소 및 둔화 리스크

⇒ [부채부담 확대(①+②) + 美관세 영향(③)] ➡ 신흥국 부실 우려 증가 ➡ 성장 하방압력

2. 국내 경제

◆ 국내경제는 더딘 내수 개선 및 수출 둔화로 성장 저하

□ 완화적 통화·재정정책 효과 등으로 내수는 일부 개선되겠으나, 통상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가 두드러지며 하반기 성장을 1%대에 그칠 전망

- (민간소비) 금리 인하·물가 안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, 정치적 불안 완화 등으로 경제심리^{*}도 다소 회복되며 점진적 개선

* 소비자심리지수(전동비, %) : △10.2('25.1) → △6.6(2) → △7.2(3) → △6.9(4) → 3.5(5) → 7.7(6)

- (설비투자) 글로벌 AI 투자 확대^{*}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하겠으나, 통상정책 불확실성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증가폭은 제약

*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(아마존, 구글, 마이크로소프트)의 데이터 센터 확장 지속

※ 특수산업용기계 수주액(3개월 이동평균, 전동비, %) : 6.9('25.1) → 11.4(2) → 5.8(3)

- (건설투자)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여건 완화에도 가계부채 규제·PF 구조조정·누적된 수주 및 착공 감소^{*}의 영향으로 부진 지속

* 건축착공현황(동수, 전동비, %) : △29.5('25.1) → △13.0(2) → △13.5(3) → △5.0(4)

- (수출) IT품목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, 美 통상정책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^{*} 및 非 IT품목 수출 감소로 총수출은 둔화

* 세계 상품교역량(전년비, %, WTO) : △1.0('23) → 2.9('24) → △0.2^P('25) → 2.5^P('26)

- (물가) 안정세를 이어가겠으나,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물가 영향,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^{*}, 기상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 잠재

* 두바이유 선물 가격(\$/배럴) : 80.4('25.1) → 77.9(2) → 75.9(3) → 67.7(4) → 63.7(5) → 69.1(6)

| < 한국은행 경제성장을 및 물가 전망 > | | | | | | < 주요 기관 성장을 전망 >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
| | 2024 | 2025 ^e | | | 2026 ^e | (%) | | |
| | 연간 | 上 | 下 | 연간 | 연간 | 기관명 | 전망치 | 전망시점 |
| 경제성장을 | 2.0 | 0.1 | 1.4 | 0.8 | 1.6 | IMF | 1.0 | '25.4 |
| 민간소비 | 1.1 | 0.8 | 1.4 | 1.1 | 1.6 | OECD | 1.0 | '25.6 |
| 설비투자 | 1.7 | 4.9 | △1.0 | 1.8 | 1.0 | KDI | 0.8 | '25.5 |
| 건설투자 | △3.3 | △11.3 | △1.1 | △6.1 | 2.8 | IB평균 | 1.0 | '25.5 |
| 수 출 | 6.8 | △0.1 | 0.0 | △0.1 | 0.7 | | | |
| 소비자물가 | 2.3 | 2.1 | 1.8 | 1.9 | 1.8 | | | |

주 : 전동비, 자료 : 한국은행('25.5월)

자료 : 각 기관

◆ 기준금리 인하 기조 지속, 원/달러 환율은 하락 요인 우세

□ (기준금리) 성장 하방 위험 완화를 위해 인하 기조 유지

- (韓銀) 韓-美 금리差 확대에 따른 환율·물가 상승 리스크 등에도 국내 경기 침체 우려 증대로 하반기 1~2차례 추가 인하하며 2.00~2.25% 예상
 - (Fed) 관세정책에 따른 인플레* 재확대 가능성 등으로 금리 인하 속도조절

* Fed 물가상승률 전망(%), 3월 전망→6월 전망) : (PCE) 2.7→3.0, (근원PCE) 2.8→3.1

| < 한국 기준금리 전망 > | | | | | < 미국 기준금리 전망 >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기관명 | '25.Q3 | Q4 | '26.Q1 | Q1 | FOMC | 3.50-3.75 | 3.75-4.00 | 4.00-4.25 | 4.25-4.50 |
| 바클레이즈 | 2.50 | 2.25 | 2.25 | 2.25 | '25.7월 | 0.0 | 0.0 | 18.1 | 91.9 |
| BNP파리바 | 2.25 | 2.25 | 2.25 | 2.25 | 9월 | 0.0 | 16.4 | 76.0 | 7.5 |
| 골드만삭스 | 2.25 | 2.25 | 2.25 | 2.25 | 10월 | 10.7 | 55.3 | 31.4 | 2.6 |
| 모건스탠리 | 2.25 | 2.00 | 2.00 | 2.00 | 12월 | 47.0 | 35.8 | 8.0 | 0.5 |
| 스탠다드차타드 | 2.25 | 2.00 | 2.00 | 2.00 | '26.1월 | 41.7 | 22.6 | 4.4 | 0.3 |

주 : 전망 시점은 '25.6월, 자료 : Bloomberg

주 : FOMC 회의일의 금리결정 확률을 나타냄,
전망 시점은 '25.6.30일, 자료 : CME FedWatch

□ (환율) 美 정책 불확실성 및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으로 1,300원대 중반에서 등락 전망

- 韓 정치적 불안 해소, 亞 통화 강세 등도 원화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원/달러 환율은 안정세

< 원/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>



자료: Investing.com, 한국은행

< 亞 주요국 환율 추이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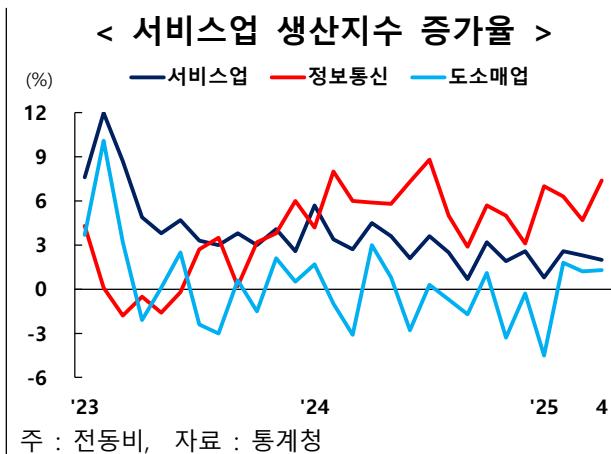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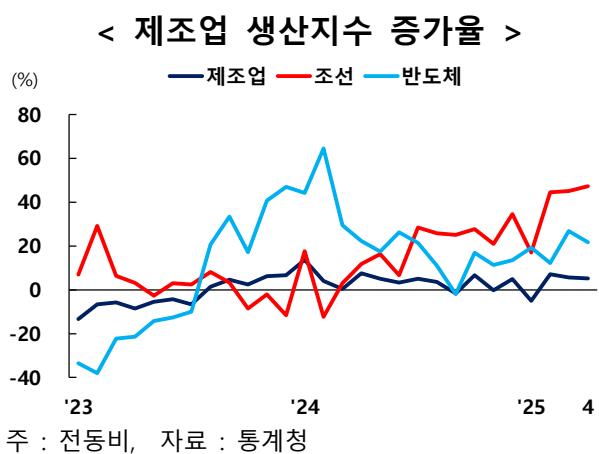
주: '22~'23년 평균 대비, 자료: 한국은행

2. 산업 환경

- ◆ 대외 불확실성, 글로벌 수요 감소 등 제조업 경기 하방 압력 증가
- ◆ 더딘 내수 개선으로 서비스업 침체 국면은 지속될 전망

□ 무역분쟁,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영향으로 제조업 성장세 둔화 예상, 위축된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서비스업 부진도 계속될 우려

- (제조업) ICT, 조선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자동차, 철강의 수요 부진, 수출 여건 악화로 제조업 전체 생산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
 - ※ ICT제외 제조업생산(전동비, %) : 1.0('22) → △1.3('23) → 1.1('24) → △0.6('25.Q1)
 - AI수요 증가로 인한 ICT부문의 수출은 양호한 성장세 예상
 - ※ 반도체수출(전동비, %) : 8.1('25.1) → △3.0(2) → 11.9(3) → 17.2(4) → 21.2(5)
 - 그 외 주요 기계 및 소재산업은 고관세, 국내외 수요 감소 등 악조건 지속
 - ※ 일반기계수출(전동비, %) : △21.4('25.1) → △12.1(2) → △3.4(3) → △6.1(4) → △5.3(5)
 - ※ 석유제품수출(전동비, %) : △28.2('25.1) → △12.4(2) → △28.4(3) → △14.3(4) → △20.9(5)
- (서비스업) 정보통신, 운수·창고업 등 일부 업종 성장 예상되나, 도·소매, 숙박·음식점업 부진으로 서비스업 전체 생산 하락 예상
 - ※ 서비스업 생산(전동비, %) : 11.6('22) → 4.9('23) → 3.1('24) → 1.9('25.Q1)
 - ※ 정보통신업생산(전동비, %) : 2.8('22) → 1.8('23) → 5.5('24) → 6.0('25.Q1)
 - ※ 도·소매업생산(전동비, %) : 9.2('22) → 1.0('23) → △0.5('24) → △0.5('25.Q1)



□ 수출 여건, 내수 경기 등에 따라 주요 제조업의 업종별 유불리 격차 심화

- **(자동차)** 관세에 따른 가격인상, 현지생산 증가, 전기차 수요정체 장기화 및 수입차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출, 내수 모두 난항 예상
※ 자동차수출(전동비, %) : $\triangle 19.6('25.1) \rightarrow 17.8(2) \rightarrow 1.2(3) \rightarrow \triangle 3.8(4) \rightarrow \triangle 4.4(5)$
 - 글로벌 시장 둔화와 美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로 완성차 기업 뿐 아니라 유관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
※ 국내 자동차부품사 평균 영업이익률('24, 자동차연구원) : 3.60%(전체) vs 2.20%(중소기업)
- **(철강)** 보호무역기조 확산([참고3](#))과 자동차, 건설 등 전방산업 수요 위축으로 내수 부진 및 수출 감소세가 계속될 전망
※ 철강수출(전동비, %) : $\triangle 5.0('25.1) \rightarrow \triangle 4.3(2) \rightarrow \triangle 10.7(3) \rightarrow 5.4(4) \rightarrow \triangle 12.4(5)$
 - 관세장벽에 막힌 중국산 철강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생산 타격 심화
※ 中철강재 수입비중(전체 수입량 대비, %) : 47.8('22) → 56.1('23) → 59.7('24)
- **(반도체)**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요증가로 완만한 성장세 예상되나, 美반도체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 등 제약 요인도 상존
※ 고대역폭메모리수출(전동비, %) : 14.1('25.1) → $\triangle 0.9(2) \rightarrow 34.2(3) \rightarrow 31.8(4)$
 - 생성형 AI 시장 확대가 견인하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로 국내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
※ 전체메모리반도체수출(전동비, %) : 17.2('25.1) → $\triangle 4.4(2) \rightarrow 18.4(3) \rightarrow 22.5(4)$
- **(조선)** 실적 양호한 가운데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^{*}로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으나, 중·소형조선사는 효과가 미미할 우려([참고4](#))
 - * 中선박에 대한 美항만 입항 시 수수료 부과로 글로벌 발주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시도
※ 조선생산(전동비, %) : 3.0('24.3) → 6.7(6) → 25.1(9) → 34.7(12) → 45.1('25.3) → 47.3(4)
 - 미국 조선업 재건^{*}을 위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, 추가 수주 가능성 높은 상황이나 혜택은 일부 대형조선사에 그칠 전망
* 자국산업보호·해군력강화 : 美LNG선 의무사용에 따른 발주, 美함정의 유지보수 확대

참고1 IBK 여신 잔액 기준 상위 5대 제조업 전망

□ 제조업

- (기계장비, 금속가공) ICT산업 및 조선업 선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, 건설업 부진으로 본격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(그 외 산업) 주요 전방산업의 수출 부진 및 더딘 내수경기 회복으로 소재, 부품 및 장비 업황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

< 제조업 내 여신 비중 및 전망요인 >

| | 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기계 및 장비 9.7% | 금속가공 7.6% | 고무 및 플라스틱 4.7% | 자동차 부품 3.6% | 전기 장비 3.3%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
* IBK 여신 비중(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)

| 업종 | 전망 요인 | 종합 |
|-----------|--|----|
| 기계 및 장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 전방산업 : 자동차, 반도체, 조선, 산업용 로봇 등 - 반도체, 조선 등 전방산업 호조로 기계·장비 설비투자 증가 예상, 자동차 관세 이슈로 인한 우려는 기계장비 수요 위축 우려 상존 <p>※ 자동차수출(전동비, %) : △19.6(25.1) → 17.8(2) → 1.2(3) → △3.8(4) → △4.4(5) ※ 설비투자(전동비, %) : △6.7(25.1) → 8.0(2) → 14.1(3) → 8.4(4)</p> | ▲▼ |
| 금속가공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 전방산업 : 자동차, 조선, 건설 - 조선업 호조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건설 경기와 자동차 수출 불확실성 증대로 금속 자재 수요 감소 예상 <p>※ 자동차생산(전동비, %) : △13.9(25.1) → 15.3(2) → 2.0(3) → △0.2(4) ※ 조선업생산(전동비, %) : 17.1(25.1) → 44.6(2) → 45.1(3) → 47.3(4)</p> | ▲▼ |
| 고무 및 플라스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 전방산업 : 핸드폰, 건설, 자동차 - 자동차, 건설 등 주요 전방산업 업종 전반적인 부진 예상으로 전반적인 둔화세 유지 <p>※ 건설업생산(전동비, %) : △27.4(25.1) → △20.2(2) → △14.7(3) → △20.5(4)</p> | ▼ |
| 자동차 부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 전방산업 : 자동차 -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로 인해 국내 부품업체 대미 수출 위축 우려 <p>※ 자동차부품수출(전동비, %) : △17.4(25.1) → △4.2(2) → △3.6(3) → 3.6(4) → △9.4(5)</p> | ▼ |
| 전기 장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 전방산업 : 전기차, 건설, 발전·전력 - 전기차 수출 감소, 국내 건설 경기 부진 및 유럽, 일본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둔화세 지속 전망 <p>※ 전기장비부품생산(전동비, %) : △9.4(24.12) → △18.1(25.1) → △8.1(2)</p> | ▼ |

자료: IBK 여신포트폴리오 현황, KISTI KMAPS, 한국은행 산업연관표, 통계청 생산지수

참고2 | IBK 여신 잔액 기준 상위 5대 서비스업 전망

□ 서비스업

- (정보통신, 운수·창고) ICT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 상승이 지속되며 긍정적 전망이 예상, 다만, 운수·창고업의 상승세는 둔화 전망
- (그 외 산업) 지속적인 내수부진 및 소비침체가 산업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며 하반기 전망은 부정적

< 서비스업 내 여신 비중 및 전망요인 >

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도매 및 소매 15.9% | 부동산 11.9% | 정보통신 3.0% | 운수 및 창고 2.1% | 숙박 및 음식점 1.9%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
* IBK 여신 비중(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)

| 업종 | 전망 요인 | 종합 |
|----------|---|----|
| 도매 및 소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통 소매업의 구조적 변화와 소비침체로 취업자 수는 감소 추세 - 소매 판매액도 감소하고, 도소매업 재고액 지수는 증가 추세 <p>※ 도·소매업 취업자(전동비, %) : △2.0('23.Q1) → △0.1('24.Q1) → △1.9('25.Q1)</p> <p>※ 도·소매업 재고액지수(2020=100) : 125.9('23.Q1) → 129.5('24.Q1) → 133.0('25.Q1)</p> | ▼ |
| 부동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설경기 부진 및 금리인하 지연 등으로 생산지수는 하락 추세를 보이며 하반기 전망도 부정적 <p>※ 부동산생산(전동비, %) : △0.5('24.3) → △0.3(6) → △5.5(9) → 2.1(12) → △0.6('25.3) → △0.2(4)</p> | ▼ |
| 정보통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ICT를 포함한 정보통신업은 취업, 생산, 수출 등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하반기 전망은 긍정적으로 예상 - 디지털콘텐츠 선호 트렌드에 따른 정보서비스의 성장도 일조 <p>※ 정보통신생산(전동비, %) : 6.0('24.3) → 7.3(6) → 9.0(9) → 3.1(12) → 4.6('25.3) → 7.4(4)</p> <p>※ 정보통신수출(전동비, %) : 19.3('24.3) → 31.1(6) → 23.7(9) → 24.2(12) → 9.3('25.3) → 10.8(4)</p> <p>※ 취업자수(전동비, %) : 2.1('24.Q1) → 1.4(Q2) → 3.3(Q3) → △0.9(Q4) → 2.5('25.Q1)</p> | ▲ |
| 운수 및 창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출증가세 둔화로 항공·수상 운송도 감소하며, 생산지수는 하락 추세 - 이커머스 증가 등 상승요인 有, 하반기 성장 예상되나 상승세는 둔화 <p>※ 화물수송(전동비, %) : 19.5('24.1) → 16.4(3) → 14.6(6) → 5.8(9) → 7.7(12) → 2.3('25.3)</p> <p>※ 운수·창고생산(전동비, %) : 25.2('22.Q1) → 17.9('23.Q1) → 7.7('24.Q1) → 3.3('25.Q1)</p> | ▲ |
| 숙박 및 음식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수부진이 숙박·음식점업의 매출하락으로 연결, 생산지수는 하락추세 - 외식산업경기전망도 하락추세를 보이며 하반기 전망은 부정적 예상 <p>※ 숙박·음식생산(전동비, %) : 1.7('24.Q1) → 1.3(Q2) → 0.1(Q3) → 0.7(Q4) → △0.1('25.Q1)</p> <p>※ 외식산업경기전망(기준=100, pt) : 79.2('24.Q1) → 75.6(Q2) → 76.0(Q3) → 71.5(Q4)</p> | ▼ |

자료: IBK 여신포트폴리오 현황, KISTI KMAPS, 한국은행 산업연관표, 통계청 생산지수

참고3 글로벌 철강제품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 따른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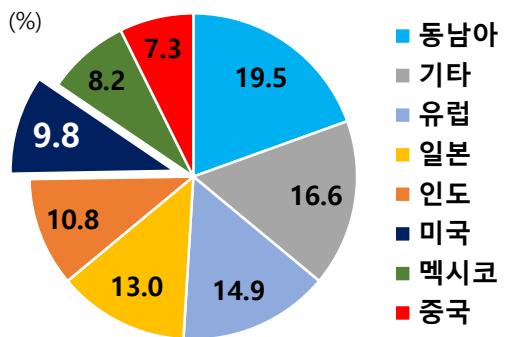
□ 글로벌 무역 장벽 강화에 따라 국내 철강 제조사 수익성 저하 예상

- '25.6.4일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하여 철강·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%→50%로 상향 조정
- 미국 관로가 막힌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팡 수출에 대한 우려로 EU, 인도 등 국가별로 무역제한조치 시행
- 철강 산업 내 상대적으로 대외 환경변화에 취약한 철강 제조 공급망 하단의 중소 철강 가공·유통업체들의 부담 가중 우려

< 국가별 무역제한조치 주요 내용 >

| 국가 | 내용 |
|-----|--|
| 미국 | 철강·알루미늄 관세 25% 부과('25.2) → 관세율 50%로 인상('25.5) |
| EU | 철강 수입량 15% 감축('25.4) |
| 인도 | 저가 철강제품 관세 12% 부과('25.4) |
| 베트남 | 국내 기업 반덤핑 과세 부과('25.4) |

< 한국 철강 수출량 국가별 비중('24년) >



자료 : 한국철강협회, 한국신용평가

참고4 미국의 해양·조선 분야 제재 조치*에 따른 조선업 영향

* 中선박에 美항만 수수료 부과 및 LNG수출 시 美선박 사용 의무화

□ 美제재안에 따른 국내업체 수혜 예상되나, 일부 대형 조선사에 국한 가능성

- 대형 조선사는 ①글로벌 빨주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시도, ②韓-美 조선업 협력 등으로 추가 건조물량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
- 중·소형조선사는 ①저가선박 수주, ②가격경쟁 심화, ③낮은 수익성, ④인력 부족 등 대형조선사 대비 경쟁력 낮아 추가 수주 가능성은 희박
- ※ '24년 중·소형조선사의 수주실적은 '23년 대비 20.6% 감소
- 규모에 따른 매출 양극화가 예상됨에 따라, 추가 수주 가능성이 낮은 중·소형사 및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전전성 관리 모니터링 필요

1. 중소기업 경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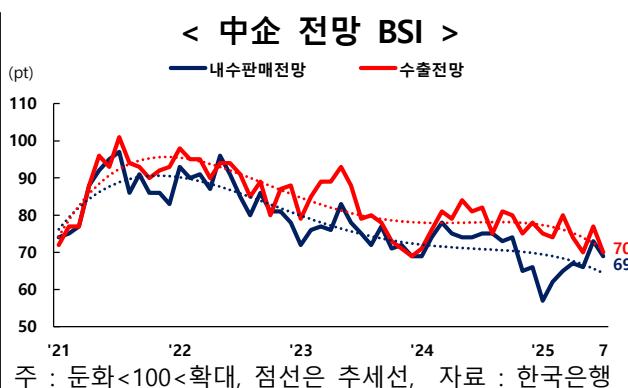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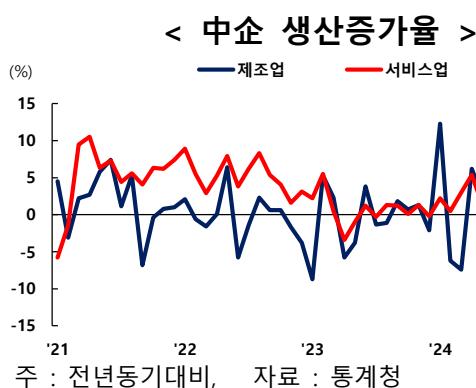
- ◆ 수출 증가세 약화 및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둔화세 지속
- ◆ 대내외 수요 악화가 계속되며 하반기 경기 부진 장기화 예상

□ (현황) 경기변동성 확대 속 수출을 중심으로 실적 반등 동력 약화

- 중소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 확대 추세
 - ※ 중소제조 생산(전동비, %) : $\Delta 1.0('24.Q1) \rightarrow 2.4(Q2) \rightarrow \Delta 0.1(Q3) \rightarrow 3.1(Q4) \rightarrow \Delta 2.6('25.Q1)$
-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나, 회복이 아닌 침체
 - ※ 중소서비스 생산(전동비, %) : $1.9('24.Q1) \rightarrow 1.9(Q2) \rightarrow \Delta 0.1(Q3) \rightarrow 0.3(Q4) \rightarrow \Delta 0.2('25.Q1)$
- '24년 회복세를 보이던 中企 수출은 '25년 시작과 함께 증가세 축소
 - ※ 中企 수출(전동비, %) : $0.1('24.Q1) \rightarrow 1.1(Q2) \rightarrow 1.5(Q3) \rightarrow 2.1(Q4) \rightarrow 0.7('25.Q1)$

□ (전망) 대내외 수요 부진과 관세 영향 본격화로 경기 하방 압력 확대 전망

- 반도체 장비, 정보통신업 호조에도 불구하고, 자동차 부품 등 관세 영향 업종 및 관련 협력사를 중심으로(☞ 이슈1) 경영실적 양극화 우려
 - ※ 中企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(전동비, %) : $\Delta 6.0('25.1) \rightarrow 21.7(2) \rightarrow 18.4(3)$
 - ※ 중소제조업의 58.0%는 美 관세의 직·간접 영향권(대한상공회의소, '25.4월)
-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및 내수 개선 지연으로 숙박·음식점 및 부동산 임대 등 자영업 밀집 업종 체감경기 회복에 시간 소요 예상
 - ※ 소매판매액지수 증감률(전동비, %) : $0.2('25.1) \rightarrow \Delta 1.8(2) \rightarrow 0.7(3) \rightarrow \Delta 0.1(4)$
 - ※ 中企 건설업 전망 SBHI(6월 기준, pt) : $81.2('21) \rightarrow 82.2('22) \rightarrow 80.6('23) \rightarrow 79.3('24) \rightarrow 66.2('25)$



2. 중소기업 금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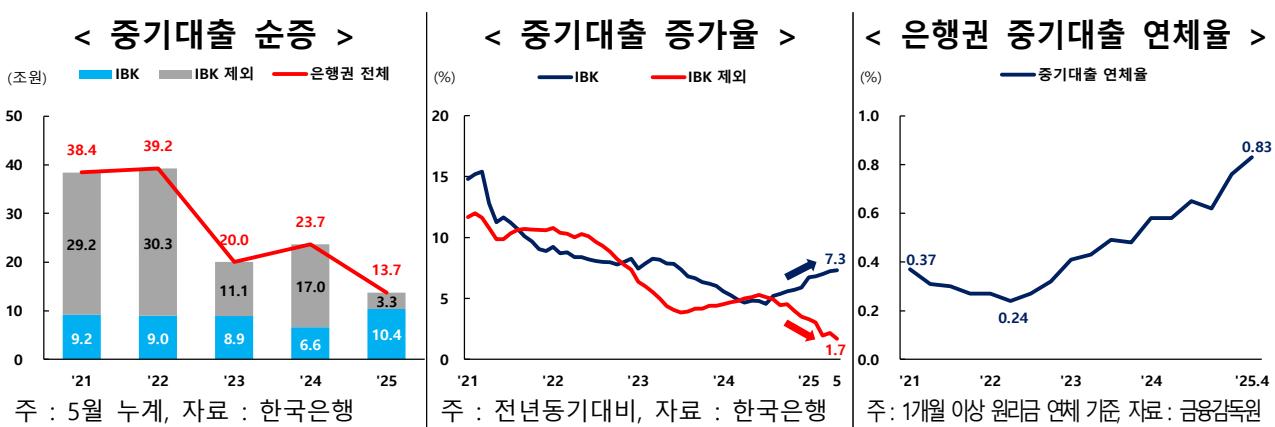
- ◆ '25.上 중기대출 순증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감소, 연체율은 상승
- ◆ 대외불안 속 투자심리 위축 및 건전성 악화로 중기대출 성장 제한

□ (현황) '25.上 중기대출 순증은 '24년 대비 감소, 연체율은 상승세 지속

- '25.5월 누계 中企대출은 13.7조원 순증, '24년(23.7조원) 대비 감소
 -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의 보수적 대출태도가 강화된 영향
- ※ 中企대출 순증('25.5월 누계, 조원) : 13.7(은행권 전체) = 10.4(IBK) + 3.3(IBK 제외)
- ※ 中企대출 증가율(전동비, %) : IBK 5.9('24.12) ⇒ 7.3('25.5) / 타행 3.5('24.12) ⇒ 1.7('25.5)
- '25.3월말 中企대출 연체율은 0.76%로 전년동기대비 0.18%p 증가
- ※ 은행권 中企대출 연체율(4월 기준, %) : 0.40('21) → 0.29('22) → 0.46('23) → 0.66('24) → 0.83('25)

□ (전망) 신용위험 증가에 따른 건전성 우려로 중기대출 성장 둔화 예상

- 은행 자본 규제 완화 등 금융당국의 자금공급 위축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,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 부담 지속
- ※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태도(Q2 기준, 강화 < 0 < 완화) : 0('23) → △3('24) → △6('25)
- 장기간 이어진 경기부진으로 기업의 운영자금 수요는 증가하겠으나,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시설자금 수요는 둔화 전망
- ※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수요(강화 < 0 < 완화) : 6('24.Q3) → 8(Q4) → 19('25.Q1) → 25(Q2)
- '25.하반기 중기대출은 정책금융 중심 공급 예상



이슈 | 중소기업 對美 수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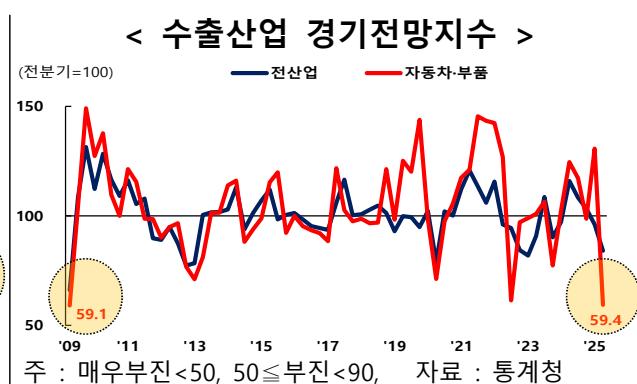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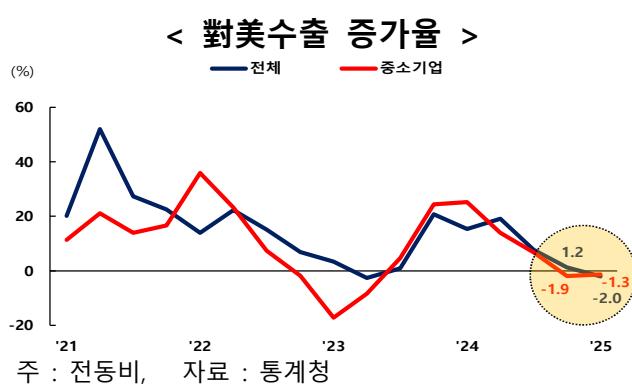
- ◆ 3.12일 철강·알루미늄, 5.3일 자동차부품에 대한 美 관세 발효
- ◆ 관세 본격화에 따른 中企 수출 영향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필요

□ 中企 對美수출은 '24.4분기부터 감소 전환, 수출전망지수도 크게 악화

- '25.1분기 中企 對美수출 증가율은 △1.3%, 2분기 연속 마이너스(-)
 - 철강·알루미늄은 3월 품목별 관세 발효 이전부터 수출금액 감소
 - ※ 품목별 수출(전동비, %) : 철강 △17.0('25.1) → △0.22 → △33.03 / 알루미늄 △135('25.1) → △7.72 → △1.83
 - 자동차부품의 경우(5월부터 관세 적용) 1분기까지는 수출 증가세 유지
 - ※ 中企 對美 자동차부품 수출(전동비, %) : 7.9('24.Q1) → 14.8(Q2) → 8.2(Q3) → 0.0(Q4) → 3.5('25.Q1)
- 관세 영향이 드러날 2분기 수출 전망은 금융위기 수준으로 악화
 - ※ 자동차·부품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(전분기=100, 한국무역협회) : 59.1('09.Q2) ÷ 59.4('25.Q2)

□ 해외투자 및 비용전가 가능 여부에 따라 기업 간 실적 양분화 예상

- 中企 직접수출 對美 의존도는 16.8%('25.Q1 기준)로 단일 수출국 1위
 - 간접수출까지 고려하면, 실질적 피해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
 - ※ 제조 중소기업의 58.0%는 美 관세의 직·간접 영향권(대한상공회의소, '25.4월)
- 中企 주력품목인 자동차부품은 美·멕시코 수출 비중이 37%'(24년)
 - 특히, 간접수출 규모가 직접수출의 2배를 초과*, 심각한 타격 우려
 - * 직접 대비 간접수출 비중('24.1~8월, %) : 214.9(자동차부품) > 119.0(석유화학중간원료) > 99.3(철강판)
- 해외투자·비용전가가 불가한 대다수 中企의 경우, 경영 타격 불가피
 - * 제조 中企 대응현황(%,'25.4월) : 현지생산·다각화 2.7 < 계획없음 24.2 < 생산비용절감 27.4





research.ibk.co.kr